

건축과 예술의 수많은 접점들

유진상 | 계원예대 교수

이 테마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1974년 남미를 여행하던 브루스 채트윈(Bruce Chatwin)은 나즈카(Nazca) 사막에서 금속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나이 든 여성과 조우하게 된다. 그녀는 독일인 고고학자인 마리아 라이케(Maria Reiche)였으며, 당시 나즈카 사막에 그려진 대형 그림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땅 위에 서있으면 바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다리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그것들은 새, 재규어, 나무, 꽃들로 변했다. 마리아 라이케는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었다. 그렇다고 당시에 드론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경량의 사다리를 이용했으며, 그것은 프로페셔널이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없으면 찾아내라. (scarcity vs. inventiveness) 하나 더. 그녀가 트럭 같은 것을 타고 돌아다녔다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며 훨씬 쉽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즈카의 그림을 훼손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존중해야 할 현실과 지켜야 할 방법의 제약이 있다. 그 때문에 마리아 라이케는 사다리를 멘 채 자신의 발로 매우 넓은 지역을 걸어다녀야만 했던 것이다. 풍족함 대신 적정성을 추구하라. (abundance vs. pertin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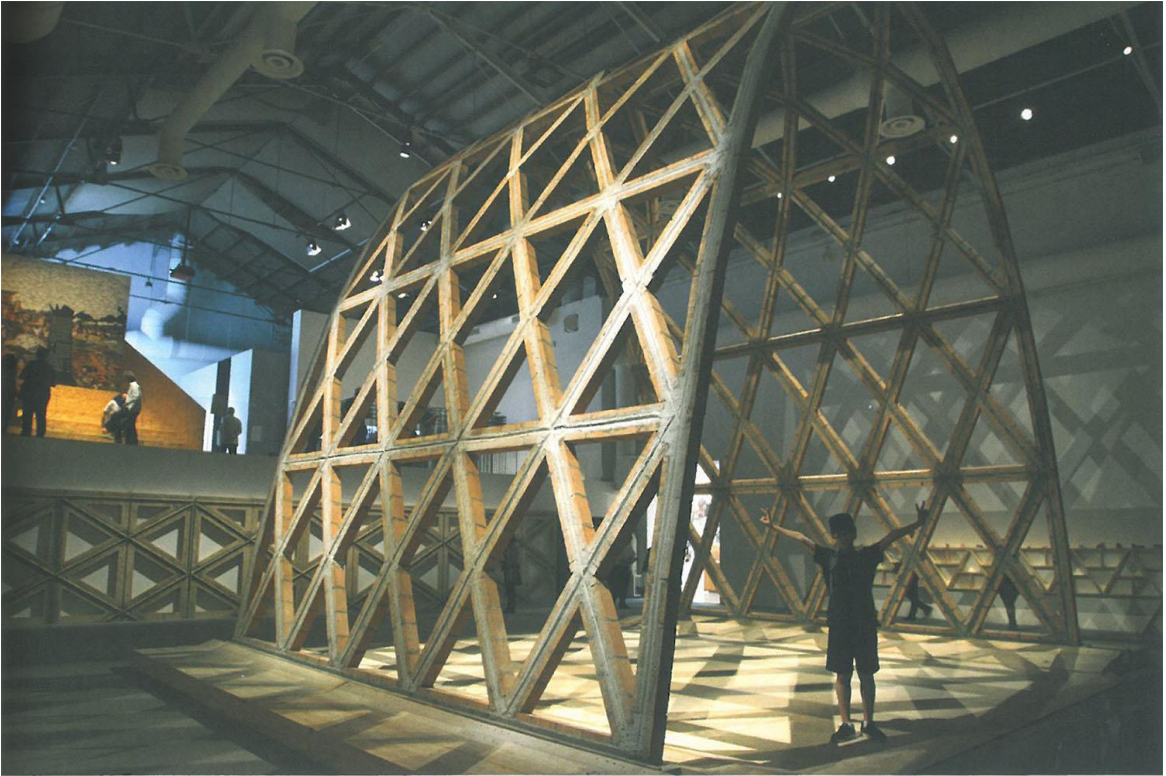
사다리에 올라서서 사막을 응시하는 마리아 라이케의 사진은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포스터로 사용되어 베니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주제인 '전선으로부터의 보고서'는 동시대의 건축가들이 새롭게 당면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창조성과 적정성을 발견해내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들은 대체로 '전선에 포진했다. 2014년에 뎀 쿨하스가 감독을 맡은 건축비엔날레가 '기초들(Fundamentals)'이라는 주제로 시공간을 넘어 보편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축적 기본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참여한 모든 건축가와 큐레이터들에게

요구했다면, 칠레의 대표적인 진보적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가 감독을 맡은 이번 전시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의 최전방에서 건축가들이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전의 건축 비엔날레가, 조직위원장인 파올로 바라타의 표현을 빌리면, '놀라운(aw-inspiring)' 건축물들을 보여주는 전시로 일관해왔다면, 2014년부터는 원래 건축 비엔날레의 출발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점점 더 '아트 비엔날레'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주제의 사회성과 리서치, 그리고 극적인 설치작업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시장에서 만난 몇몇 전문가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실천적 시각이 기존의 건축시장과 접점을 찾기 전까지는 이러한 노력이 판넬적인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라베나와 같은 건축가조차 '반쪽 아파트' 프로젝트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의 프로젝트들은 건축주를 위해 지어진 것들이라고 한다. ("건축은 아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축 비엔날레에 쏟아져 나온 사례들과 대안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회자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황금사자상을 받은 가비네트 드 아르키텍튀라(Gabinete de Arquitectura (Solano Benítez; Gloria Cabral; Solanito Benítez)의 프로젝트는 아라베나가 요구한 '부족함(scarcity)'의 극복을 가장 잘 충족시킨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오로지 벽돌과 비숙련 노동력만 넘쳐나는 파라과이에서 농민들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으로 인한

벨 아키텍트(Bel Architects) <Open Incremental architecture> 독일 5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담았다





황금사자상을 받은 파라과이의 가비네트 드 아르키텍투라(Gabinete de Arquitectura)의 프로젝트. 강력한 소재를 활용한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즉 비숙련 노동자들이 벽돌을 이용해 상당히 품질 좋은 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 비엔날레에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는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대안으로서 활용 가능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은사자상은 Makokok, Lagos 지역의 대안적 워터프린트를 보여준 NLE 그룹에게 돌아갔다. 한국은 2014년에 이어 국가관 연속 수상을 노렸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을 만큼 현지에서 기대가 컸다. 스페인은 지난 수십 년간의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지어진 건축물들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버려지는 상황 속에서

이 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다루어 국가관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일본과 페루에 돌아갔는데, 특히 일본관은 3·11 대지진 등으로 황폐화된 지역의 건물들을 최소한의 재건축을 통해 현대적 건축으로 변모시키는 방안, 재난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접목함으로써 흥미로운 해결책들을 보여주었다.

미술가가 제안하는 건축에 대한 접근

이번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FAR Game'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용적률'에 의거한 건축 방법론의 독특한 전개를 다루었다. 한국의 독특한 건축규정인 용적률을 극대화하면서 건축주,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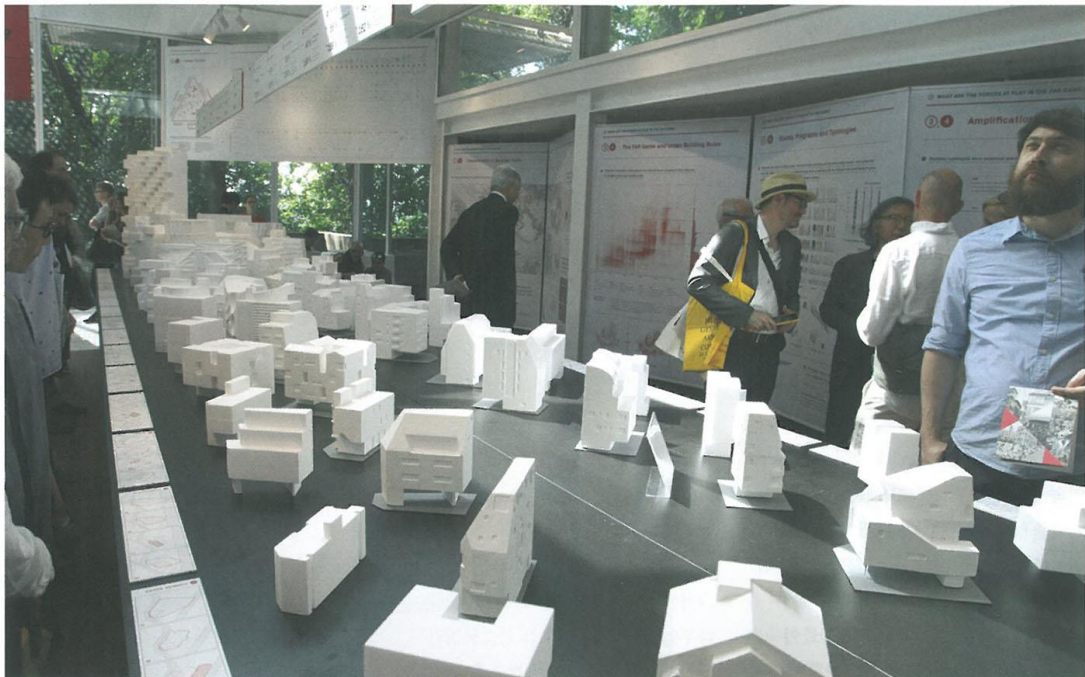
개발업자들을 두루 만족시켜야 하는 한국 건축가들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이 한국관 전시의 기획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시를 위해 김선홍 전시감독과 그의 팀은 서울의 약 60만 채에 이르는 건물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72개의 모형과 36채 건물의 청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소규모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FAR Game'이 지나는 사회적, 건축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유일하게 본전시인 아르세날레에 초대된 한국 작가로는 최재은이 있다. 기획 및 콘셉트를 본인이 맡고, 건축기술 파트를 반 시게루가 맡아 공동작업으로 진행된 '꿈의 정원'은 철원의 DMZ(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위 최재은 <꿈의 정원> 프로젝트.
일본 건축가 시게루 반과 협업한 이 프로젝트는 DMZ(비무장지대)
내 '평화의 다리'와 '종자은행'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아래 한국관 전시광경. 'Far Game'을 주제로
한국의 '용적률'에 대한 건축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오른쪽 페이지
페터 Zumthor(Peter Zumthor) 'Handmade Architecture' 프로젝트.
3D프린팅 등 최근의 디지털화한 건축방식을 벗어나 손수 제작된
건축방식의 가치를 재고한다





‘평화의 다리’ 프로젝트와 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중자은행’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업은 1990년대부터 전 세계의 지층들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간의 흔적을 기록해온 드로잉 프로젝트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 역시 대표적인 분쟁지역인 DMZ에서 생동하는 자연의 시간들과 역사적 순간들의 중첩을 수많은 지표 위에 떠있는 ‘공중정원’이라는 구조를 통해 가시화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체결로만 구조를 계획한 반 시계루의 생태친화적 대안이 작품의 내용에 접맥될 수 있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유엔이나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기구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재은의 작품은 전시 오프닝 기간 중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건축가가 아닌 예술가의 건축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최재은은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아트 비엔날레와 건축 비엔날레에 모두 초대된 작가이다.)

최재은이 전시한 공간에는 또 다른 작가가 한 명 전시하고 있는데,

바로 건축계의 철학자로 알려진 피터 Zumthor(Peter Zumthor)다. 스위스 발스(Vals)의 공중목욕탕 건물이나 메헤르니히(Mechernich)의 일인용 채플인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Bruder Klaus Chapel)로 잘 알려진 그는 최근 LACMA의 상설 컬렉션 건물 설계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건물의 모형을 일부 전시하면서 한국계 미국인 패션디자이너인 크리스티나 김과 협업했다. 겹겹이 단단해 보이는 미술관의 창문 바깥에 2단으로 배열된 둥그렇게 휘어진 옷걸이에 걸린 무지갯빛 옷들로 거대한 노을과도 같은 스펙트럼을 시각화한 이 작품은 마치 그의 건물에서 내다본 세계가 얼마나 예술적일지에 대해 강조하는 시각적 예시처럼 보인다. 이 강렬하고 화려한 설치작업은 그의 명상적 건축물에 익숙한 관객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을 테지만, 실제로 한국의 노래방에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그의 ‘밝은(?)’ 면을 아는 이들에게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아라베나의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요약되어 있다. “전선으로부터의 보고”는 더 많은 관객과 함께 새로운 실천의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지평을

넓혀가는 이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분리, 불평등, 주변부, 위생의 확보 문제, 자연재해, 주거 부족, 난민, 비정규성, 범죄, 교통, 쓰레기, 공해, 그리고 공동체에의 참여와 같은 이슈들이 포함된다. 동시에 이는 서로 다른 차원들이 통합을 이루는 사례들을 제시하는 일에 대한 것이며 실용성을 실존과, 적정성을 적극성과, 창의성을 상식과 통합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의 탐색 끝에 파올로 바라타가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의 방향성을 아트비엔날레와의 상관관계에서 찾아냈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정치적 주제와 극적인 설치작업이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은 어쩌면 아티스트 건축이건 ‘비엔날레’라는 문화-역사적 플랫폼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베니스는 비엔날레의 중심지인 것이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팔라초 프랑케티(Palazzo Franchetti)에서 열리는 (자하 하디드 회고전)은 앞서 언급한 사회-정치적 대안으로서의 건축과는 또 다른 축, 다시 말해 ‘놀라운 건축’의 가장 탁월한 예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오래된 베니스의 팔라초 안에 전시된 하디드의 수많은 프로젝트 모형과 프로토타입들, 기록영상물과 무엇보다도 그가 1980년대 초부터 그려온 영감어린 드로잉들은 동시대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데 모자람이 없다. 입구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대형 3D 프린팅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그가 설계한 수많은 건물이 처음에 어떤 원형들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중심의 전시물들을 보고 있자니, 위대한 건축가의 경우에는 건축 또한 예술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 비엔날레를 통해 관객은 두 극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